

女아이스하키 단일팀, 北3명 기용...우리선수 피해 불가피

단일팀 총 35명 구성...경기 출전 엔트리 22명



지난해 4월 6일 IIHF 아이스하키 여자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2 그룹A 대륙한국. 우리나라(흰색)와 북의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의 엔트리가 35명으로 늘었다. 20일(한국시간)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남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남북 평창올림픽 참가 회의를 열고 북한이 평창올림픽에서 3개 종목, 5개 세부 종목에 걸쳐 선수 22명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코칭스태프를 포함한 인원 24명을 더하면 북측 선수단 규모는 총 46명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도 성사됐다. 북측 선

수 12명을 엔트리에 추가. 단일팀은 35명으로 구성된다.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의 엔트리는 23명이다. 단일팀 35명은 기존의 한국 선수 23명에 북한 엔트리를 포함한 것이다. IOC와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러 국가들의 협조가 있었다. 다른 참가국들은 그대로 23명이다. 하지만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엔트리는 다른 참가국과 마찬가지로 22명이다.

IOC는 "한국이 경기당 최소 3명의 북한 선수를 기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 선수들 가운데 경기에

나서지 못하거나 출전시간이 줄어드는 선수가 여럿 나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단일팀을 추진하면서 "우리 선수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종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올림픽같은 종합 스포츠대회에서 단일팀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쟁된 남북 관계를 화해 모드로 바꾸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는 기대다.

하지만 정부는 협회나 선수단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회생을 강요한 부분은 두고두고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단일팀 추진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 등은 무지와 실언으로 선수단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올림픽이 임박한 상황에서 급조된 엔트리 35명으로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과거 단일팀은 공정하게 선수를 선발하고 충분한 기한을 뒤 손발을 맞출 기회를 줬다.

단일팀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세라 머레이(30·캐나다) 감독이 이끈다. 한반도기를 새긴 유니폼을 입는다. 나라이름은 '코리아(Korea)', 국가는 '이리랑'으로 결정됐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도종환 장관,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이희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유승민 IOC 선수위원, 장웅 북한 IOC 위원 등이 참석했다.

“류현진, 올시즌 20~25경기 선발”...전제조건은 건강

LA타임스 전망 “선발 한자리 차지한 뒤 FA”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1·LA 다저스)은 2018년에도 건강하게 한 시즌을 소화할 수 있을것인가.

미국 LA타임스는 19일 다저스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의 기사를 통해 류현진의 올 시즌을 예상했다.

14개 질문 중에는 "다저스에서 류현진의 미래는?"이라는 항목도 있었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의 미래는 과거(2017시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단 다저스 선발 로테이션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치게 된다"고 전망했다. "류현진이

건강을 유지한다면 2018시즌 20~25번 정도 선발 등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시즌도 다저스에는 선발투수가 차고 넘친다. 스프링캠프부터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선발 로테이션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홀리우 유리아스, 워커 블러, 로스 스트리플링 등 젊은 유망주들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 다저스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지난 시즌 부상자

명단을 활용해 6인 로테이션을 돌리기도 했다.

지난 시즌 부상에 들어온 류현진은 한 차례 구원 등판을 포함해 25경기에 출전했다. 126%이닝을 던져 5승 9패 평균자책점 3.77로 부활에 성공했다.

지독히도 승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올 시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25경기 정도 선발 등판한다면 4년 만에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둘 가능성도 있다.

류현진은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인 2013시즌 30경기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한 뒤 2년차인 2014시즌에는 26경기에서 14승 7패 평균자책점 3.38의 성적을 거뒀다.

2015년 어깨 수술에 이어 2016년 팔꿈치 수술도 받으면서 2년을 거의 통째로 날렸다. 복귀 전망이 어둡다고 지난 시즌 재기에 성공했지만 구속 저하와 이닝 소화 능력에서 건강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진 못했다.

LA타임스는 "류현진은 올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다"고 설명했다. 2018시즌이 끝난 뒤 FA 자격을 취득하는만큼 부상 이전의 몸상태로 성적을 올려야 대형 FA 계약을 노려볼 수 있다.

류현진에게는 더 없이 중요한 시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라이징선’ 정현, ‘지는 해’ 조코비치에 설욕 베틀다

오늘 호주오픈 16강...톱10 이내 선수 꺾으며 상승세



정현(22·한체대·삼성생명 후원·58위)의 호주오픈 16강진 상대가 노바 조코비치(31·세르비아·14위)로 결정됐다.

정현은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3회전(32강)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21·독일·4위)에 3-2로 역전승을 거두고 16강에 올랐다. 개인 첫 그랜드슬램 대회 16강 진출이자 2007년 9월 US오픈 이형택(42·은퇴) 이후 10년여 만에 메이저 대회 16강 무대를 밟은 한국 선수가 됐다.

정현의 16강진 상대는 조코비치

다. 지난해 7월 팔꿈치 부상 이후 이번 대회를 통해 코र्ट로 돌아왔다. 3회전에서 알베르트 라모스 비놀라스(스페인·22위)를 3-0으로 완파하며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했다.

정현은 2016년 이 대회 1회전에서 조코비치를 만나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3-0(6-3 6-2 6-4)으로 완패했다. 당시 랭킹 1위 조코비치는 정현을 대회 첫 판에 가볍게 누른 뒤 상승장구하며 우승까지 거머쥐었다.

하지만 둘의 상황은 2년 전과 많이 달라졌다.

조코비치는 지난 6개월 동안 투어 활동을 중단해 실전 감각이 조금은 무뎠진 상태다. 나이도 서른을 넘었고 랭킹도 현저히 떨어져 14위권 밖이다.

정현은 지난해 11월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첫 우승을 경험했다. 꾸준히 대회에 나서며 경험을 쌓았다.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톱10 이내 정상급 선수를 꺾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현은 "1. 2년 전만 하더라도 역전승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요즘은 코र्ट에서 있는 자체가 기분 좋다. 승패를 떠나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상승세의 비결을 전했다.

이들의 16강 대결은 22일 센터 코र्ट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정현은 2년 전 패배를 당한 코र्ट에서 설욕 기회를 잡았다.

정현은 "2년 전에는 코र्ट가 크게 느껴졌는데 오늘 오전에 연습하러 들어가면서 '이렇게 코र्ट가 작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경기도 더 마음 편하게 치를 수 있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조코비치와) 2년 전 대회 1회전에서 만난 적이 있다.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때와는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2년 전과 서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도 기대된다.

뉴시스

“일본, 남북단일팀, 따르기는 하겠지만...” 부정적

“IOC, 비판에 귀 막는 일방적 대응 일관” 꼬집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와일드카드 형식을 빌려 북한 선수 22명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허락한 것을 두고 일본 체육계는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북 대표단은 20일 오후 5시30분(한국시간) 스위스 로잔의 IOC 본부에서 남북 올림픽 회의를 열고 북한 선수 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평창동계올림픽 티켓을 한 장도 확보하지 못했던 북한은 총 22명의 출전을 관철시켰다.

여자 아이스하키에서는 올림픽 최초의 단일팀을 꾸리기로 했다. 남북 단일팀은 23명(22명 출전)으로 구성되는 다른 국가와 달리 총 35명으로 이뤄진다. 한국 측 23명의 엔트리를 모두 보존하고, 12명의 북한 선수가 가세하는 방식이다.

경기 출전 선수는 22명으로 다른

국가와 같다. 이들 중 3명 이상은 반드시 북한 선수로 채워야 한다.

일본 지지통신은 21일 "회담을 마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성명만 낭독한 뒤 질문 없이 빠져나갔다"면서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에 특별히 뒤 등복 선수의 수를 늘려줬지만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과 선수기용 자유의 손실 우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IOC는 러시아 도핑 문제와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난민 선수단이 결성됐을 때 대대적으로 어필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에 귀를 막는 일방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일본아이스하키연맹은 "남북 단일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다.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말로 하긴 어렵다"고 예들러 불만을 내비쳤다. 일본은 다음달 14일 남북 단일팀과 격돌한다.

일본빙상경기연맹 관계자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종목 북한 와일드카드 선수들의 합류에 "불공평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쇼트트랙의 경우 선수가 늘어나면 종목 특성상 출동이 잦아져 누군가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참가할 북한 선수들이) 순위가 낮지만 어쨌든 선수의 수는 늘어날게 된다. 규칙을 이해한 후 내린 결정인지 모르겠다"고 아쉬워했다.

영국 가디언은 남북 단일팀 타결 소식과 함께 "한국의 젊은이들과 보수주의자들은 외교 편의를 위해 올림픽 정신을 희생시켰다고 비난한다"라며 부정적인 국내 분위기를 전했다.

뉴시스

모굴스키 최재우, 월드컵 아쉬운 4위 3위와 불과 0.77점차...생애 첫 월드컵 메달 놓쳐



프리스타일 모굴스키의 최재우(24·한국체대)가 월드컵에서 메

달 획득에 실패했다. 최재우는 20일(현지시간) 캐나

다 퀘벡주 트랑블랑에서 열린 2017~2018 국제스키연맹(FIS) 모굴 스키 월드컵 2차 결선에서 87.67점을 기록해 4위에 올랐다.

예선에서 6위로 결선 무대에 오른 최재우는 1차 결선에서 89.38점을 기록해 3위에 올랐다. 그러나 2차 결선에서 87.67점으로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아 4위로 밀려났다. 4위 최재우와 3위 드미트리 레이커드(카자흐스탄)와의 점수차는 불과 0.77점밖에 나지 않았다. 어렵게 생애 첫 월드컵 메달을 놓친 것이다.

최재우는 월드컵 랭킹에서도 4위를 탈환했다. 오는 2월 열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메달 전망을 더욱 밝혔다.

한편, 월드컵 13개 대회 연속 우승을 이룬 미카엘 킹스버리(캐나다)는 우승을 놓쳤다. 킹스버리는 93.27점을 기록했지만, 93.88점을 받은 호리시마 아쿠마(일본)에게 금메달을 내줬다.

‘주급 5억6000만원’ 호날두, 레알 떠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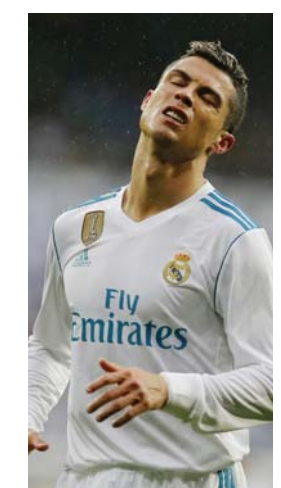
많은 나이·높은 연봉 때문...메시(7억4000만원) 수준 원해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3)가 레알 마드리드를 떠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포르투갈 매체 레코르드는 19일 "레알이 호날두를 이적 시장에 내놔다. 이유는 많은 나이와 높은 연봉"이라고 전했다.

레알이 호날두 이적료로 1억 유로(약 1310억원)를 책정했는데, 호날두는 리오넬 메시(31) 수준의 연봉 인상을 원했다는 것이다. 호날두는 레알과 불화설에 시달

리고 있다. 호날두가 연봉 협상에서 지나친 요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와중에 사이가 틀어졌고 호날두는 레알을 떠날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호날두는 레알에서 주급 36만 5000파운드(약 5억5800만원)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의 주급 50만 파운드(약 7억4000만원)보다 적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날두는 레알을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고 잉글랜드



클럽에서 호날두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드 프리미어 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호날두의 새로운 팀으로 거명된다. 파리 생제르맹(프랑스·PSG)과 중국 슈퍼리그 등 여러